

전통을 만난다, 혼을 느낀다

장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전통과 역사는 그래서 더 값진 가치가 됐다. 분주한 세상을 비껴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장인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장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철 탐금질과 두드림의 연금술

충주는 예부터 철의 으뜸 생산지였다. 고려 시대 몽골에 대승을 거둔 곳도 충주 지역이다. 몽골보다 월등한 철제 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충주시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자리한 삼화대장간에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쇠를 녹여 철제 기구들을 제작해온 야장(충북 무형문화재 13호)이 있다. 올해 75세인 도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선생이 직접

제작한 화로에서 쇠가 탐금질 되고 다양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철로 제작된 불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고려 시대 사찰인 단호사 대웅전에 모셔진 철조여래좌상(보물 512호)은 철로 만들어진 불상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 태권을 체험할 수 있는 태권전수관,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이 있는 충주세계무술공원도 둘러보기에 좋다. (문의 : 삼화대장간 043-848-4079)



대장간에 걸어놓은 문고리와 가위.

벼루 추사 김정희가 즐겨 사용하던 최고의 벼루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추사 김정희 유물 중에는 벼루가 세 개 있다. 그 중 두 개가 남포벼루다. 보령 남포에는 최고급 벼루의 대명사인 남포벼루의 명성을 잇는 장인이 있다. 3대째 가업으로 벼루를 제작하는 김진한 명장이다. 평생 벼루와 함께한 그는 1987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6호, 1996년에는 석공예 부문 대한민국 명장이 되었다. 장인의 손을 거친 백운상석은 먹을 갈 때 맵그려지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글을 쓰면 윤기가 나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고, 목지에 물을 넣어도 쉬 마르지 않는 남포벼루로 탄생한다. 남포벼루의 고장 보령에는 빼어놓을 수 없는 맛도 있다. 보령8경 가운데 7경인 오천향의 키조개와 천북면의 굴은 보령의 맛을 보여준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한 키조개의 패주(관자)와 비리지 않고 탱글탱글한 굴이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충남탄전의 발달 과정과 채굴 장비, 작업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보령석탄박물관도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문의 : 남포벼루무형문화재 041-932-8071)



백운상석으로 만든 남포벼루.

한과 140년 전통의 한과 명가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갈골) 한과마을은 기름에 튀겨 만드는 산자와 강정 생산지로 유명하다. 현재 60여 가구가 한과를 만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난 2000년 한과 분야 최초로 전통식품명인(23호)에 지정된 최봉석 명인(71세)이 있다. 1870년대에 최 명인의 4대조가 한과 제조법을 전통 방식대로 체계화한 이래 5대째 집안 고유의 비법을 이어오고 있다. 국산 재료를 사용해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최 명인의 산자와 강정은 고급스러운 맛과 부드러운

문 식감이 일품이다. 제조장 부근에는 전시장과 체험관을 갖춘 '갈골한과 체험전시관'도 운영되고 있다. 한과 마을 가까이 둘러보기 좋은 관광지도 많다. 경포대, 선교장,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오죽헌이 있고 주말이면 자리를 찾기 힘든 인기 높은 안목 커피거리, 커피 전문점 '커피커피'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박물관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문의 : 갈골한과 명인의 집 033-641-8200, 8300)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갈골한과 체험전시관.



은 신경을 벼루에 집중하고 있는 김진한 명장.

아픔의 땅 그곳, 평화의 기차 달린다

코레일, 서울~도라산 'DMZ-train' 5월부터 운행

역사와 자연이 만든 기적의 땅, DMZ가 철로를 따라 섬섬 우리 앞에 다가온다. 살랑살랑 불기운이 가득할 5월부터 기차를 타고 DMZ의 숨겨진 속살을 엿볼 수 있다. 민통선 안에 있는 도라산역은 2009년 이후 일반관광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5월부터 DMZ-train으로 일반관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 도라산역을 왕복하게 될 DMZ-train은 총 3량으로 준비됐다. DMZ-train에는 평화·자유·화합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담겨있다. 각각의 소망을 담은 DMZ-train은 서울에서 출발해 능곡-문산-임진강-도라산역을 돌아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 1호차의 테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이다. 남·북을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을 넘어 더 먼 곳까지 달리고 싶은 철마의 소망과 추억을 담아 녹스 증기 기관차를 형상화했다. 2·3호차는 사랑과 화합을 상징한다. 동·서양의 아이와 어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서 사랑과 화합을 얘기하고 있다. 손을 잡고 서 있는 사람들 위로는 고운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열차 내부도 곱게 꾸며져 있다. 내부 바닥에는 평화누리 공원의 연꽃이 그득하다. 천정에는 알록달록 예쁜 풍선이 하늘을 떠가고 있다. 열차 좌석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가 가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투명 칸막이에도 눈길이 간다. 진짜 무궁화가 곱게 피어있다. 곱고 예쁜 기차에 올라 가깝지만 먼 기적의 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DMZ-train 희망의 집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떨어지는 낙엽의 배웅을 받으며 철로를 타고 달리는 기차 여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에 청량리-동두천-한탄강-백마고지역 구간에도 DMZ-train을 운행할 계획이다. 백마고지역은 생태관광의 천국이다. 백마고지역은 6·25 전쟁 이후 60년 만에 복원되어 2012년 11월에 역이 개통됐다. 강원도의 곡창지대인 철원평야가 있고 주변에 철새들이 머무기에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생태관광에 제격이다. 서울과 DMZ 일대를 철도로 연결하는 평화생명관광벨트는 코레일이 추진하는 세 번째 관광, 지난해 중부내륙관광벨트와 남도해양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데 이어 평화생명관광벨트를 통해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DMZ-train 1호차.



전국 주요역에서 판매하는 렛츠코레일 패스 바우처.

소중한 이들에게 명품 기차여행 선물하세요

'렛츠코레일 패스 바우처' 인기

소중한 이들에게 명품 기차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 전국 주요역 여행상담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렛츠코레일 패스 바우처'(이하 바우처)가 이색 선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바우처는 전국역 창구에서 '패스'로 교환해 관광전용열차인 O·V·S-train과 연계 구간 새마을호 이하 일반열차를 기간 중 횡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이다. O-train은 서울·수원 출발, 충북·강원·경북 관광지를 순환하는 중부내륙순환열차. V-train은 대한민국 오지, 경북 분천-강원 철암 협곡구간을 왕복하는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인 S-train은

부산·서대진 출발, 경전선 남도해양권을 운행한다. 역 창구에 패스를 제시하면 좌석을 지정받을 수 있고, 좌석이 없어도 해당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1일권 5만1400원, 2일권 6만5600원, 3일권 7만9900원이다. 시니어와 청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된다. 본인이 구입해야 하는 기명식 패스와 달리 바우처는 누구나 구입해 이용할 수 있어서 여행 선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렛츠코레일 패스 바우처'는 전국 주요역 여행상담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544-7788, www.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